



# CEO Brief

2021.02. 제2021-3호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 보험산업 수익성과 대응방안

### 요 약

2019년 말 이익규모는 자본비용을 고려한 필요이익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과부족 상황임.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며, 저성장 환경에서 보유계약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고금리 보유계약 이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 및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정착을 유도해야 함

### 1. 보험산업 수익성 진단

○ 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과 수익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19년 말 이익규모는 자본비용을 고려한 필요이익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과부족 상황임

- 2019년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실적이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3.9%, 5.5%로 2010년 대비 1/3 수준까지 하락함
- 특히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ROE는 2019년 기준 북미 9.8%, 유럽 8.4%, 아시아-태평양 11.4% 등 해외 생명보험산업 ROE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한편, 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된 보험산업 필요이익은 10.1조 원으로 2019년 보험산업 당기순이익 5.4조 원은 필요이익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보험산업은 일회성 처분이익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2019년 보험산업의 이익구조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에서 채권 처분이익의 비중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62%, 87%로 높게 나타남
- 자산부채 매칭을 위해 일정 부분 채권 매각은 불가피 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과도한 매각은 미래 이익의 조기실현에 따른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험산업의 이익규모가 적정 이익규모를 크게 하회하는 것은 보험산업 저성장,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산운용



# CEO Brief

여건 악화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한편,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내재가치 중 최근 보유계약 가치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유계약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내재가치 구성항목 중 순자산가치는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유계약 가치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보유계약 가치 하락은 이자역마진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고금리 보유계약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

## 2. 대응방안

○ 보험회사는 수익성 악화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고금리 보유계약을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처방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장기적 관점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과 지표를 장기적 수익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공동재보험, 계약이전, 계약 재매입 등을 활용하여 고금리 보유계약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 및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하에서 보험회사에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계획을 마련해야 함

- 감독당국은 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펀드 참여 시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 필요한 자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의 조속한 마련과 금리위험 등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노건엽 연구위원  
gynoh@kiri.or.kr